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8층 805호(만성동, 오케이타워)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5월 8일(목) 제 3089호

이재명 "살기 힘드시죠?…균형발전, 어려운 지역 특별 지원해야"

7일 경청투어 전북 방문
"정권교체 통해 국난 극복"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시사

D-27 6.3 대선

이재명 후보 '경청투어' 전북 방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장수군)에 이어 7일에도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 일환으로 전북자치도 진안군, 임실군, 전주시, 익산시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사진은 진안고원시장 방문. <사진=전북타임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장수군)에 이어 7일에도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 일환으로 전북자치도 진안군, 임실군, 전주시, 익산시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 후보는 이번 농촌지역 방문과 도시지역 방문에서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권교체를 통해 빨리 극복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의 정권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똘똘 뭉쳐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골구로 잘 살 수 없으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려운 지역에 대해 추가 특별 지원대책이 필요하며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바꿔야 한다"며 "총칼과 폭탄을 막아낸 사람이 바로 국민이며 위대한 국민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할때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는 농어촌기본소득제도 도입도 어렵지 않으며 농촌지역도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올릴 경우 농촌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고원시장 방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과 안호영 의원, 이원택 의원 등과 첫 행선지로 진안고원시장을 방문했다.

연단에 나선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코로나 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힘드셨죠. 정권 교체로 빨리 일상을 되찾읍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군민 여러분 실기 힘드시죠. 이렇게 살 수는 없죠. 새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 새 출발의 기일이 정해진 날이 바로 6월 3일 맞습니까. 여러분의 손으로 새로운 세상 시작할 준비 되셨죠? 그저 중요한 거는 먹고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한 후 "행복하게 사는 것,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 우리 자식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노후가 걱정되지 않는 그런 세상 한 번 만들어 보자"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가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소비도 안 하고 모임도 안 하고 자꾸 위축되고 있는데 6월 3일부터는 다시 바닥을 찍고 다시 정상으로 그리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법원, 이재명 재판 6월 18일로 연기

재판 공정성 논란 해소
균등한 선거운동 보장
실제 재판 열릴지 미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대선 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되면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완화됐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면서 재판 일정 연기도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임을 애둘러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곧바로 재판일정을 오는 15일 열기로 했다.

하지만 거대 민주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재판부 탄핵 등을 거론하면서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재판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특히 민주당은 파기환송을 주도한 대법원장에 대해서 오는 15일 국회 청문회 일정을 잡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재판일정을 연기하면서 실제로 재판이 열리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이는 민주당이 헌법 84조를 들어, 대통령의 일반 형사재판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재명 재판 중지법안'을 대선 직전에 국회에서 의결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도 이 후보가 유죄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며 대장동 등의 재판도 연기를 촉구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홍준표 "윤석열, 나라 망치고 당도 망치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7일 "윤석열은 나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쳐놓고 이제 당도 망치고 한국 보수진영도 망치려 하느냐?, 지더라도 명분있게 져야 한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명분이 생긴다"며 이같이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친윤 지도부를 강력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3위로 탈락한 뒤에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국민의힘도 탈당했다.

정계를 은퇴한 홍 전 시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올린 것은 국힘 친윤 지도부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를 추진하려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홍 전 시장은 경선 초반에 윤 전 대통령과 친윤 지도부가 자신을 지지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5월 8일 목요일

이재명 "반드시 새로운 나라 만들 것"

<1면에 이어서> 그는 "골고루 잘살길 위해서는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의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돼 있어요. 서울이고 수도권이고 또 힘센 사람들한테 더 많이 가진 사람한테 더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이러니 나라가 점점 한쪽으로 몰려서 양극화도 심해지고 격차도 심해지고 불평등도 심화되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게 경제성장을 멈추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해야 되고 특별한 희생을 치르거나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나 특별한 지원을 위해서 균형을 맞춰 함께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정치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라며 "그 중의 방법 하나가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할 때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을 든, 폭탄을 든 계엄군을 막은 게 누굽니까? 바로 국민들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해요. 우리 국민들이 위대하고, 위대한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나라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믿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죠?"라며 "농어촌 기본소득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진안군 예산만 해도 1인당 2천만 원이 넘을 것이에요. 그런데 도가 조금 지원하고 중앙 정부가 조금 지원해서 1인당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그걸 지역화폐로 지급해 주면, 이 갈치조림집, 전주식당 이런 데 장사 잘될 것 아닙니까?"라고 제시했다.

이밖에 이 후보는 재량 예산을 늘려서 지역 화폐도 대규모로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 소득도 지급하면 농촌 인구가 늘어날 수 있으며 농촌에 재생에너지를 건설하면 농사 짓는 것보다 몇 배 수익이 확대되고 경제회복으로 국내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임실시장 방문

오전 11시10분께 임실시장을 방문한 이 후보는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만한 그런 세상 만들수 있겠다"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정치인들, 대통령, 국회의원, 군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을 잘 뽑지 못하면 지금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여기에 오수면이라고 있다면서요. 멍멍이도 충직하게 주인을 모시다가 죽기까지 하는데 사람이 되어가지고 국민이 맡긴 일을 제대로 하기는 커녕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겠다고 하고 그런 잘못된 공직자를 벌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들을 편드는 이 나쁜 사람들,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이 위대한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최선을 다해 행사하는 사람들을 잘 뽑아놓으면 여러분 신간 편하게 아까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임실군에도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함께 사는 희망있는 동네,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대박이네 가게를 방문해 상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전주 방문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골목골목 경청투어' 일환으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주시에 방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주시 완산구 한 카페에서 영화감독과 드라마 작가 등 문화예술 분야 관계자들을 만나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영화 '국제시장', '해운대' 등을 연출한 윤제균 감독과 영화 '다음 소희'의 정주리 감독, 드라마 '더 글로리'와 '도깨비'를 집필한 김은숙 작가,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의 박해영 작가 등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영화와 드라마, 정치가 그리는 미래의 스크린'이라는 주제로 최근 위기를 겪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는 해법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익산 방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오후 3시께 구 익산시청 제2청사 앞에 있는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임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어르신 돌봄공약'을 발표하며, 노년층 현안을 놓고 대화를 나눴다.

이번 이 후보늬 어르신 돌봄공약은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60대 이상 노년층 의견을 수렴을 통해 지지세 확장을 도모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최성민 기자,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 한병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오전 임실시장을 방문해 2천여명의 임실 군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한병열 기자>

전북자치도, 수출기업 200억 규모 특례보증 지원

기업당 최대 8억까지·1년 만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전북자치도내 수출산업 생존 강화 위한 200억 원 규모 금융 특례보증지원이 추진된다.

이번 도의 특례보증지원은 미국 상호관세 부과 및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도내 수출기업 생존 지원책이다.

금융 특례보증지원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운용하며 이와 함께 '희망전북 함께 도약 특례보증'도 연계 시행된다.

'희망전북 함께 도약 특례보증'란 희망전북 함께 도약 특례보증에서 수출지원 부문을 추가해 200억 원 규모 특례 보증 시행을 의미.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선정 기업 △최근 1년 내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등이다.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 거래 외국환은행, KTNET 등에서 발행하는 수출실적 증명서로도 확인할 수 있다.

보증지원은 기업당 최대 8억 원까지 가능하며,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보증 기간은 1년 만기 후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단기 유동성 위기 대응과 장기적인 자금 운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도는 도비를 활용해 연 1.5% 이차보전을 1년간 추가로 지원하며 보증료율은 연 0.9%로 고정이다.

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출기업 위기 극복과 함께 글로벌 경제 변화 대응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관련 제도 정비를 마친 후 5월 셋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보증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며, 신청 및 문의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능하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보증지원은 도내 수출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전략적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진안군 진안시외버스공용정류장 인근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전길빈 기자>

김제시, 전북형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사업 협약 체결

지역 평생학습 새 지평 '로컬공방형 배움터' 등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전주시,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7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형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시를 비롯한 도 교육협력추진단, 진흥원장과 전주시, 익산시 평생교육 전담부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식은 교육부 주관 '2025년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의 일환인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하고. 김제시, 전주시, 익산시가 지정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사업'은 우수평생학습도시를 중심으로 광역-기초지자체-지역대학 및 기업 연계를 통한 컨소시엄형 사업이다. 개별 기초지자체의 한계를 넘어 도시간 또는 광역차원에서 평생학습자원을 연계·협력하는 방식으로, 고령화와 인구소멸 등으로 열악해진 지역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로컬학습시대를 여는 전북형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김제시뿐 아니라 전주시, 익산시와 함께 원광대학교 등 지역 교육기관 및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서비스인 '달리는 모두배움터' ▲지역 특화 학습공간 '로컬공방형 마을배움터'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30+ 이로운 디지털생활' 등 다양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난해 우수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이어 이번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사업 선정을 통해 김제시가 지역을 선도하는 평생학습도시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모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모두의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에 참석 차 전주시에 방문한 가운데 점심식사를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최성민 기자>

전주시, 바이오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

고부가 의료제품 판로 개척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바이오 기업 역량 강화 도모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지역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국·내외 바이오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인프라 구축과 기업 R&D 지원 사업, 신축 입주 공간 확보 등 첨단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박차를 가해 왔으며, 여기에 지역 바이오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돕는 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7일부터 오는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펼쳐지는 '바이오 KOREA 2025'의 전북홍보관에 참여하는 전주지역 6개 기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메디앤리서치 △바이엘티 △바이오리올로직스 △CBH △오가넬 △헬스케어크레임스으로, 바이러스 치료제부터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바이오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들이 포함됐다.

이번 바이오 KOREA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전시 등록 및 전시회 디렉토리북 등재, 부스 임차 및 기본 장치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들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최신 글로벌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외 기업 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통해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및 해외 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바이오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북 보스턴 오픈이노베이션'과 연계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으로, 올해는 미국 내 심포지움 및 박람회 참여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과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하는 R&D 발굴 및 기획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전주지역 기업은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에 5개사, R&D 발굴 및 기획 사업에 4개사가 각각 선정됐으며,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에 선정된 5개사는 오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산업 행사인 '바이오 USA'에 참여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첨단 의료제품을 전시하고 글로벌 바이오 선도 기업·연구기관과 비즈니스 미팅을 포함해 다양한 토론 및 워크숍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지역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전주시>

이를 통해 지역 바이오기업들이 해외 투자 교류 활성화 및 글로벌시장 진입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바이오산업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세계 최대 바이오 시장인 미국을 비롯한 해외 판로 개척은 물론 첨단바이오 연구결과를 신속하게 산업화할 수 있는 노하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 바이오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기업 친화적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적 창출을 이끌어내 바이오산업이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막바지

상반기 모든 철거 마무리
하반기 복합단지 조성 착수

지난 60여 년간 전주의 중심부에서 자리를 지켜온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공사가 막바지 본부석만 남게 됐다.

전주시는 7일 전주종합경기장 건축물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본부석 철거를 이달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우범기 전주시장은 마지막 구조물 철거에 돌입한 전주종합경기장 철거공사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주문했다.

전주시는 총 105억 원을 투입해 전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과 전주푸드, 수위실 등 총 연면적 3만6751㎡의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종합경기장 철거공사를 추진해 왔다.

이후 올 상반기까지 폐기물 처리와 현장 정리 등 모든 철거 공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MICE복합단지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종합경기장이 철거와 마이스(MICE)산업 중심의 복합단지 개발은 전주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전주를 글로벌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유입 확대 전담 조직 가동

17개 부서장-전북硏, 협력체계
문화관광·체육 등 세분화 운영

전북자치도는 7일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인구 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전담 조직을 본격 가동했다.

최근 정부 및 지방정부들도 생활인구 감소 해법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오가는 사람'까지 포착한 새로운 인구 전략에 본격 착수했다.

도는 급격한 인구감소 시대, 지역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도정 전반에 걸친 생활인구 종합대책 수립에 나섰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와 외국인 등록 인구는 물론, 등록지 외 시군구에 하루 3시간 이상, 월 1회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통근, 관광, 학업, 일시 체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기존 거주자 중심 인구정책을 보완하는 현실 밀착형 인구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실거주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지역을 찾고 소비하는 생활인구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이 지역 경제와 공동체 유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의는 기획조정실장을 주재로 인구청년정책과장, 문화산업과장 등 17개 부서장과 전북연구원 인구청년연구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TF는 생활인구의 유형과 활동 영역에 따라 △문화·관광·체육 △외국인·중장년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해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 인구청년정책과장이 생활인구 현황과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TF 운영 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도 정책기획관실 통계분석팀은 14개 시군 생활인구 통계분석 진행상황을 보고했으며, 전북연구원은 생활인구 유입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별 선도과제 20건을 제안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TF 운영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분야별 사업을 발굴하고, 2026년도 예산 반영 등 실행력 있는 정책 수립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생활인구를 중심으로 전북의 실질적 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생활인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설공단, 결손가정 특별한 어린이날 선사

'지니의 소원 들어주기' 통해
어린이 29명 선물 전달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결손가정 아동들에게 레고, 닌텐도 게임기 등 특별한 선물을 건넸다.

공단은 '요술램프 요정 지니의 소원 들어주기 프로젝트'를 통해 결손가정 어린이 29명에게 480만 원 상당의 소원선물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전달한 선물은 레고 장난감과 닌텐도 게임기, 운동화와 운동복, 책가방 등으로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어 했던 것이다.

공단은 전주시 드림스타트와 연계해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이 무엇인지 직접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물건들을 일일이 구매했으며, 직접 포장까지 한 뒤 선물을 전달했다.

요술램프 요정 지니의 소원 들어주기 프로젝트는 화장지와 라면 등 생필품 위주의 나눔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결손가정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취지로 진행하는 공익 프로그램이다.

공단은 전주시 드림스타트를 비롯해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공단은 2021년부터 지니의 소원 들어주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올해까지 총 71명의 아이들에게 123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

이연상 이사장은 "소원선물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5개 사립작은도서관 맞춤 컨설팅 지원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도시 곳곳에 위치한 사립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8일부터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5개 작은도서관에 1:1로 컨설팅단을 파견하는 맞춤형 컨설팅팀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작은도서관의 신청을 받아 운영자 간 멘토링 형태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의 자생력을 높이고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컨설팅단은 지난 3년 동안 전주시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5개 사립작은도서관의 운영자로 구성됐으며, 올해 컨설팅 대상인 △그림그리는작은도서관 △다꿈작은도서관 △숨은보석작은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특히 5명의 컨설팅단은 5개 작은도서관에 일대일로 매칭돼 직접 방문해 도서관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운영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상황별 맞춤형 상담도 진행하게 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장서 관리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 △공모사업 신청 및 지원 방법 등 도서관 운영 전반에 걸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이번 사립작은도서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운영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작은도서관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도로공사 전북본부-휴게소協, 함께라면 동참

한국도로공사와 전북고속도로휴게소들이 1인 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전주시의 '전주함께라면' 사업에 동참키로 했다.

전주시는 7일 전주시장실에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득순), 전북휴게소협의회(회장 김형구)와 전주함께라면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첫걸음으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이날 전주함께라면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성금 200만원과 라면 100박스를 기탁했다.

또한 전북휴게소협의회는 이날 협약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할 고속도로휴게소에서 판매 중인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특화라면을 기반으로 전북휴게소협의회 조리봉사단과 전주시 사회복지관이 협력해 '라면데이' 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감염병 대비 비상방역체계 가동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과 설사 환자 집단발생 감시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추석 연휴 포함)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로 인해 설사와 복통,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기온 상승과 장마 등으로 병원체 증식이 쉬운 여름철에 급증한다.

실제로 지난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건수는 전국 529건으로 지난 5년(2019~2023년) 평균(479건) 대비 10.4% 증가했고, 이 가운데 44%인 232건이 하절기인 5~9월에 발생했다.

이에 보건소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유관부서와 상황을 공유하고, 5월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점검을 위한 비상응소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 및 설사 환자 집단발생의 신속한 인지 및 대응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에 적시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발생 신고 시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적극 대응키로 했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 금지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 6대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최근 기온 상승과 야외 활동 증가로 물이나 음식으로부터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높아지는 만큼 일상 속 작은 생활 수칙 실천으로 감염병 예방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근 기자

전북경찰청,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편취 피의자 검거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21년 1월경 덕진구에서 진로변경 차량을 충격한 뒤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67만 원 상당 편취, '24년 8월까지 전주, 완주 등지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차량 등 중요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1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로부터 5,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특히 전북도경찰청은 서민경제와 보험체계 근간을 위협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5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교통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5년 4월말 기준 3억 7,000만 원 상당 보험금 편취 피의자 32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수사를 의뢰받고 차량 블랙박스 및 사고장소 주변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8개월 간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다.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등에 사고 장면이 포함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의뢰해 '고의사고 가능성' 및 '사고 회피 가능성 높음' 의견 회신받은 14건을 고의 교통사고로 특정 입건했다.

피의자는 고의사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사고장면이 담긴 영상, 국과수 및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확인한 감정결과, 상대차량 운전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5월 8일 목요일

"농촌기본사회 실현 농촌위기 대응해야"

전북연구원, 농민기본소득 정립 3대 전략 제시
농민공익수당·농촌기본소득·생활돌봄 전면화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농촌기본사회 실현 위한 3대 전략 △농민공익수당 △농촌기본소득 △농촌생활돌봄을 제안했다.

먼저 '농민공익수당'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전북자치도 '농민공익수당'은 농민기본소득으로 의미를 갖는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농민기본소득'이다. 기존 정책을 강화해 농민기본소득의 정립이 가능하다.

둘째로 '농촌기본소득'의 혁신적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농촌주민은 불리한 여건에서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농촌 유지를 위해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일정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전면적인 정책 도입 한계를 고려해 '농촌군(郡)'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역적 추진 기반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농촌생활돌봄' 정책을 확대 전면화해야 한다. 사람이 적다는 이유로 시장(민간)이 철수하고 정책이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에 대응해야 한다. 농촌생활돌봄은 일상의 안정 장치이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주체' 육성이 관건이다. 전북자치도 선도사업(생생마을관리소) 확대와 정부 정책 활용이 중요하다.

전북연구원은 7일 '지방소멸 위기'에서 현실화된 농촌지역에서부터 '기본사회' 실현 핵심전략 필요성 강조.

또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로 '농촌기본사회 실천, 3대 전략'이 제시됐다.

분야·세대·계층·지역을 종합할 때, '기본사회' 시작은 '농촌지역'이 우선이라 밝혔다. '산업화·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곳, 균형발전과 멀어진 가장 아픈 곳, 불리함을 당연시하며 살아가는 곳'. 이른바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곳인 '농촌사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1〉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3대 핵심 전략수단 요약

구분	① 농민공익수당 (농민 생산자)	② 농촌기본소득 (농촌 지역주민)	③ 농촌생활돌봄 (농촌 지역주민)
성격	농업의 공익적 기능 생산 '담당자' 보상	농촌지역 '지킴이' 역할에 대한 보상	농촌사회 '일상생활'의 최소 안정장치
배경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없이 공공재 지출비용이 더 많이 소요	지방소멸위기에서 '농촌사회 유지'를 책임지는 주민 지원은 필수 불가결	생활돌봄 서비스 제공 주체도 없는 농촌지역에서 주체 육성이 핵심
목적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지속가능 농업	농촌 지역사회 유지, 농촌사회 활력	생활돌봄 제공주체 육성, 삶의 질 향상
대상	농업 생산자 (가구당, 농가당 확대)	농촌주민 전체 (주민등록 개인 모두)	사회적 취약한 농촌주민 전체
지급	지역화폐 (지역순환경제 효과)	지역화폐 (지역순환경제 효과)	생활돌봄 서비스 (지역효과)
금액	월 5만원 (지급액 상향 검토 중)	도시민-농촌주민 생활비 차액	담당인력 활동비와 경비 지원
특징	(기존-자체사업) 확대와 강화	(신규-자체사업) 도입과 확산	(기존-정부·자체) 확대와 내실
지향	농촌지역이 담당해온 일터·삶터·쉼터로서의 역할 유지가 우리 사회가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우선 해결할 과제		

전북연구원은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사진=전북연구원>

연구책임 황영모 선임연구위원은 "농촌기본사회는 정부(국가+지역) 재정 여건을 고려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되, 농촌기본사회로 나가는 단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 제약과 정책 효율성을 이유로 현상 유지와 관리 대상에 그치지 않기 위해 기존 정책을 강화하고 신규 정책의 혁신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농촌사회는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커져 영농 불리함과 생활 불편함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불확실성이 높아진 복합위기 상황에서 사회 회복력 원천인 농업·농촌에서부터 기본사회를 현실화하는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은 지난해 민주연구원과 '농촌기본소득 연구협약'을 맺고,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선도 정책을 기획해 왔다. /김영태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뮤지컬 '6시 퇴근' 선봬

'지역주민 문화 축제' 첫 공연
선착순 신청 통해 무료 관람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가정의 달 '6시 퇴근' 뮤지컬 공연을 준비해 오는 27일 지역민들에게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는 지역주민 문화 축제 프로젝트 'KESCO 칸타빌레'의 첫 번째 공연이다.

공연은 완주군 본사 새울림홀에서 열린다.

관람 접수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착순 신청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특히 포스터 하단 QR코드로 접속하면 1인당 2매까지 티켓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뮤지컬 '6시 퇴근'은 매출 실적이 낮으면 팀이 해체된다는 통보를 받은 제과회사 홍보팀 직원이 겪는 에피소드로서 직장인들의 애환을 담아낸 라이브밴드 뮤지컬이다.

싱어게인 출연자 태호와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얼굴을 알린 홍은기, 아이돌그룹 CLC에 소속됐던 오승희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여기에 김찰리, 이든, 강웅곤, 박태성 등 잔뼈가 굵은 배우들이 다수 출연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주민을 위해 마련한 특별 공연이 즐거운 추억과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혁신도시와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 환원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농가 소득 안정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실질적 농가 소득 안정 기여
재해·시장가격 하락도 보장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보장하던 자연재해 및 병충해 피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특히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기준수입 대비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그 차액만큼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실질적인 소득 안정을 지원한다.

보장은 수준에 따라 최대 85%까지 가능하다.

기준수입은 농가별 과거 5년 평균 수확량과 과거 5년 올림픽 평균 시장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전국 시행품목 9개 '고구마, 옥수수, 콩, 가을·월동양배추, 가을감자, 마늘, 양파, 포도, 보리'와 특정 지역 시범운영 품목 6개 '벼, (봄감자), (고랭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감귤(만감류), 단감, 복숭아'를 포함해 총 15개 품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 대상은 도내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재배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품목별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작물 재해 보험에 경제적 손실까지 보장하는 정책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했다. <사진=전북자치도>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해당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협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중기청, 예비 유니콘 기업 특별보증 지원

예비유니콘 보증 참여기업 모집
딥테크기업 지원 확대 가점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5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을 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누적 투자실적이 50억원 이상(지역스타기업은 30억원)이고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충족하거나,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지원 가능하며 1차 서류평가, 2차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약 15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부는 올해부터 심층기술(딥테크)*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심층기술(딥테크) 영위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기술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 10대분야 : △AI·빅데이터 △시스템반도체 △로봇 △미래 모빌리티 △클라우드·네트워크△우주·항공·해양 △친환경·에너지 △양자 기술 △바이오·헬스케어 △차세대 원전

또한 올해부터 최종평가 우수기업(상위 30%)에 대해 글로벌 진출 가속화를 위해 성과연동 보증지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성과연동 보증제도란 일회성 지원이 아닌 기업성과에 연동한 보증지원 방식으로 선정 이후 매출이 증가하거나 후속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별도 보증심사 없이 추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영태 기자

농어촌公 '지하수댐' 기술개발 선도한다

지하수댐 R&D사업 토론회
전 주기 기술개발 본격화

한국농어촌공사는 지하수댐 국가 R&D 사업 성공적 수행 위한 학계 등과의 협력 방안 대토론회를 지난달 28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토론회 장에는 농어촌공사 임직원, 동국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도화엔지니어링 등 9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이자리에서 기술개발 추진 계획과 신규사업 방향에 대한 발표·토론 등이 이어졌다.

지하수댐 국가 R&D 사업이란 지하에서 모래, 자갈층이 두껍게 발달한 지역에 물막이벽을 설치해 지하수 저장량을 증가시키고, 관정이나 집수정을 활용해 용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시설.

공사는 지난 4월 환경부 발주 '물 공급 취약지역 지하수저류댐 관리 기술개발 사업' 연구과제 수행자로 선정됐다.

이 연구는 지하수댐 입지 선정부터 설계, 운영, 연계 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4년간 연구비 353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공사는,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시범 운영 공간(테스트 베드)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하며 '대외기관, 민간기업'과 함께 'KRC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했다.

이에 따라 공사의 지하수댐 분야 전문성은 한층 강화된다.

공사는 지금까지 5개 농업용 지하수댐과 1개 생활용 지하수댐을 설치·운용하며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전문적 기술을 축적해 왔다.

또 이번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운영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운동'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진=전북농협>

전북농협, 관광객에 '아침밥먹기·고향사랑기부' 홍보

전주역서 쌀 나누며 캠페인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운동'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관광객이 많은 전주역에서 전북농협 이정환 총괄본부장, NH농협손해보험 김용재 전북총국장 등 임직원 2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북농협은 이자릴 통해 전북에서 생산된 쌀과 홍보물을 나눠주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통해 내 고향 전북을 활성화시키고, 답례품으로 쌀 및 쌀가공품을 선택해 아침밥 먹기 등 쌀 소비 촉진 및 우리 농촌을 살리는 캠페인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최근 농촌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로 전북 내 농업·농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농업·농촌의 근간인 쌀 산업 지속유지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 및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으로 적극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전북농협은 지난 3월 임직원 대상 '아침밥 먹는 날'을 시작으로 △아침밥 먹기 운동 TF 구성 및 운영 △초·중·고등학생 대상 아침밥 먹기 인식개선 교육 등 우리 쌀 소비를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축제 방문객 대상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타지역 농협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교차 기부 △지역 우수 농축산물 답례품 발굴 등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중이다.

/김영태 기자

농진청 "콩 파종, 품종부터 재배지 관리까지 꼼꼼히"

종자소독 시 병 발생 감소
7월 하순 후 파종 수량 급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안정적인 생산 위한 '콩' 종자 준비부터 심기까지 요령을 소개했다.

종자 준비를 위해 파종 전 심기 차례(작부체계)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한다.

앞 작물 생육기간이 길면 알이 일찍 여무는 올콩을, 반대로 앞 작물의 생육기간이 짧으면 수확량 확보를 위해 중만생종을 선택한다. 종자 파종량은 일반적으로 밭 10아르(300평) 기준 중만생종 콩 약 5kg이다.

종자 소독으로는 베노밀·티람 수화제 같은 종자소독제를 사용하면 병해충 발생을 줄이고 발아 품질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티람 액상 수화제는 살균제이자 조류 기피제로, 처리 후 종자를 건조하면 효과적인 소독이 가능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재배지 선정에는 콩은 논과 밭 모두에서 재배할 수 있다.

논은 경지 정리가 잘 돼 있어 기계 진입이 쉽고, 물길(관개수로)이 갖춰져 있어 물 관리가 수월하다. 반면, 수직 배수가 잘되지 않아 침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 온 뒤 기계 진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밭은 물빠짐이 원활해 침수나 습해가 적은 장점이 있으나, 관개시설이 부족해 가뭄 피해가 발생하기 쉽고 경지 정리가 안된 곳이 많은 것이 단점이다.

재배지 관리는 (논) 물 빠짐이 잘되는 계단식 논이 적합하다. 물 빠짐이 나쁜 평야지 논은 장마나 집중호우에 취약해 습해나 침수 피해로 수확량이 감소할 수 있다.

파종 전 가장자리에 굴삭기나 맥류 배토기를 이용해 60~80cm 깊이 물길을 만들고 두둑을 조성하면 생육 초기 습해나 장마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밭) 물대기가 가능하고 기계 진입이 쉬운 곳을 선택하는 게 좋다.

특히 밭 콩은 꼬투리 맺히는 시기(착협기)부터 종실이 커지는 시기(종실 비대기)까지 수분이 원활히 공급돼야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물 관리에 힘써야 한다.

심는 시기 및 방법에는 중부지방은 6월 초중순, 남부지방은 6월 중하순이 적절하다. 심기가 늦어지면 생육이 떨어지고 성숙기 저온에 노출돼 종자 품질이 떨어지고 수확량이 감소할 수 있다.

특히 7월 중하순 이후에 심으면 수확량이 크게 떨어지므로 녹두 등 생육기간이 짧은 다른 작물을 파종하도록 권장한다. 3cm 이내 깊이 한 구멍당 2알씩 심는 것이 기본이다. 논은 수분과 점토 함량이 높아 깊이 심으면 싹트기(발아)가 어려울 수 있어 주의한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노조 "공사 입찰 심사위원 명단 사전 유출" 의혹

"경찰, 신속 수사" 촉구
도교육청 "자체 검사 진행중"

전북교육노조가 전북경찰청을 찾아 전북교육청이 일련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행위가 드러난 사실이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7일 전공노와 교공노는 전북경찰청에서 "전북교육청에서 경각심을 주고 과거 부패했던 시절로의 회귀를 막고자 전북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한다"며 "앞으로도 노조에서 확인된 내용들을 토대로 계속해서 수사 요구를 통해 청렴했던 시절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과학교육원의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넘겨주는 대가로 금전거래 시도가 있었다"며 "명단은 비공개 사항이고, 이를 통해 불법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것만으로도 경찰의 수사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안은 감사관실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즉각 수사기관에 수사의로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북교육청은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 '감사관실에서 조사중이다'는 정도로 사태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교육감과 측근들이 떳떳하다면, 해명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전북교육청 공무원들이 부패와 비리에 두려워하지 않고 일터가 자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부패와 비리를 뿌리뽑는 일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입찰 비리 의혹이 발생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사태를 축소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전북교육청은 의혹이 제기된 후 감사에 착수해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전북교육청은 이어 "모든 의혹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정의와 청렴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부패와 비리를 단호히 거부하며, 자부심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7일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5층 우석홀에서 개교 46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사진=우석대학교>

우석대학교 '개교 46주년 기념식' 거행

장기근속 교직원 근속상
이사장상·총장상 수여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7일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5층 우석홀에서 개교 46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기념식은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과 박노준 총장, 학처장, 교직원, 재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근속 교직원 근속상 수여, 이사장상 및 총장상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경순(교양대학 진천) 교수 외 12명이 30년 근속상을, 문성원(심리학과) 교수 외 1명이 20년 근속상을, 최혜선(간호학과) 교수 외 8명이 10년 근속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이현영(기획팀)·장은(산학협력실) 직원은 이사장상을, 부유택(입학지원센터)·노원빈(글로벌교육지원센터)·김태경(입학관리팀) 직원은 총장상을 받았다. 또한, 강푸름(간호학과) 교수 외 12명이 강의우수 교원으로 선정돼 총장상이 수여됐다.

이 밖에도 신재동(군사학과 4년) 학생 외 7명이 우석인재상을, 류후이(刘慧·글로벌외식경영학과 박사과정 4차수) 대학원생 외 1명이 우석글로벌상을 받았다.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은 "해가 갈수록 대학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대학은 이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미래형 융합 인재 양성, 지속 가능한 사회 설계를 이끄는 핵심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전문 교사 투입, 대입 리드한다

대입아카데미 연수 개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변화하는 대학 입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사의 대입 진학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5 대입 아카데미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연수는 도내 일반계 고교 교사 80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4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전북 대입 아카데미는 고등학교 교사 중 진학지도 경험이 부족하거나 최신의 대입 정보를 통해 대입 전형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교사를 위한 '기본반'과 풍부한 진학지도 경험을 가진 교사들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심화된 내용을 제공하는 '심화반'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강사로는 전북대입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 대학 입학 사정관 등이 참여해 대입과 관련한 실질적인 내용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본반에서는 △신규 진학교사를 위한 진학지도 매뉴얼 △지역인재 전형과 수능 전형을 고려한 진학지도 △대입 전형별 대학의 평가 방법의 이해 △입시변화를 고려한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등에 대해 안내한다.

심화반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와 지도 △대입 상담 및 진로진학 지도 사례연구 △수능 전형의 이해와 지도 △2028 대입을 위한 단위 학교에서의 준비 방안 등을 연수할 계획이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대입 환경에서 교사의 진학지도 전문성이 아주 중요하다"며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강화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국민권익위, 청렴사회 구현 협력

전북학생의회 의원
권익위 2030 자문단 동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와 손을 맞잡았다.

전북교육청은 7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인재 양성 및 교육현장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미래세대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교육현장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청렴 사회 구현에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체결식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전북학생의회 의원 6명과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 4명도 함께 참석해 청렴 실천의 주체로 힘을 보탰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초·중·고 학생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렴교육 콘텐츠 확산 △부패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 △교육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정수급 예방·관리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서거석 전북교육청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교육청도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학부모 교육 강사단 대폭 확대

10개 분야 89명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교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교육 강사단 인력풀'을 새롭게 구축·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학부모 대상 교육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존 5개 분야 42명 규모였던 강사단을 10개 분야 89명으로 대폭 확대해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강사단은 △자녀이해(감정코칭, 심리상담 등) △미래교육·에듀테크 △성교육 △학교폭력예방 △학력신장(자기주도학습, 학습코칭) △독서·인문 △진로진학 △학부모 리더십 △교육활동보호 등 총 10개 분야로 구성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공개모집을 통해 강사단 신규 인력을 선발하고, 기존 강사들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거쳐 역량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아울러 전북교육인권센터, 진로진학지원센터 등 교육청 내 유관 부서와 협력해 우수 강사 인력을 연계함으로써 강사단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강화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강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부모와의 효과적인 소통 기법 △강의 기획력 향상 △최신 교육 동향 등 체계적인 맞춤형 연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장유라, 국제 학술지에 e-헬스 리터러시 발표

전북대학교 장유라 박사과정생(간호대학, 지도교수 양영란)(사진)이 디지털 헬스 정보 활용 능력인 'e-헬스 리터러시(e-Health Literacy, 이하 e-HL)'가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청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이목을 끌고 있다.

장 박사과정생은 'e-헬스 리터러시가 제2형 당뇨를 가진 청년층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당뇨 자가효능감과 자기관리 행동의 병렬 매개효과'라는 주제의 논문을 세계적 권위의 SSCI급 간호학 학술지인 'Applied Nursing Research'(IF:2.7, 간호학 분야 JCR Q1 등급)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내 제2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e-HL와 당뇨병 관리에 대한 자신감(당뇨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 자기관리 행동(self-care behavior) 등이 건강 관련 삶의 질(HRQOL)을 높이는 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장유라 박사과정생은 "그간의 당뇨병 연구는 대부분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뤄져 젊은 당뇨 환자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며 "이번 연구가 젊은 당뇨병 환자들이 디지털 건강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실제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한국관광 100선 스탬프투어 정읍 내장산에서 첫 도장을!

6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빛나는 정읍 내장산이 여행하기 좋은 5월을 맞아 다채로운 이벤트와 할인 혜택으로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정읍시는 인증 현판 설치와 함께 스탬프투어, 철도 연계 할인 상품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마다 국내외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대표 관광지 100곳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내장산은 2025~2026년 선정지에도 이름을 올리며 6회 연속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이를 기념해 최근 내장산 관광안내소(옛 매표소 옆)에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100선 – 내장산국립공원' 인증 현판을 설치하고 방문객들에게 그 의미를 알리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제47회 전국검도선수권대회 익산시 실내체육관서 개최

익산시에서 전국 검도 선수들이 모여 무술의 정신과 기량을 겨룬다.

익산시는 '대통령기 제47회 전국검도선수권대회'가 5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대한검도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검도회와 익산시검도회가 공동 주관한다. 대회가 열리는 4일간 17개 시도, 119개 팀에서 참가한 검도 선수 1,200여 명이 개인전 및 단체전 경기로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전국에서 모인 우수한 선수들의 열정적인 경기를 관람할 수 있어, 시민과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익산=최준호 기자

초 여름밤 군산을 달구는 축제 2025 수제맥주&블루스페스티벌

지역 농업과 연계해 수제 맥주를 발전시키고 있는 도시 군산에서 올해 네 번째 군산 수제 맥주 페스티벌이 열린다.

군산시는 오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서 '2025 군산 수제 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산 수제 맥주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수제 맥주 일번지, 군산에서 즐기는 진짜 우리 맥주'라는 주제 아래 차별화된 지역 축제로 부상하며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 수제 맥주는 수입 맥아에 의존하던 기존의 맥주와는 차별화된 맛을 제공하며,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새만금신항,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항만기본계획 통합 수립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항만분과심의회를 통해 새만금신항을 원포트(One-Port)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군산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항만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제2도약의 발판을 만들게 됐다.

군산시는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새만금신항을 원포트로 지정해야 한다는 군산시의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군산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원포트 지정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군산시는 새만금신항은 토사 퇴적에 따른 군산항의 수심 저하 문제를 보완하고 대형선박(5만톤급 이상)이 접안 가능한 부두 시설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와 일체화되어 군산시 해양 관할구역에 조성되어 군산항의 항세를 외해로 확장하기 위해 건설되는 항만이라고 연계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항만의 현 추세는 국내외 항만 모두 통합을 추진하여 과도한 경쟁과 공급과잉, 항만시설 유휴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시는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하나의 무역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통합 수립하여 적정한 시설 수요 예측과 항만 기능 재조정이 가능하고, 항만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물동량 유치 경쟁을 방지하는 한편 항만별 특화 방안을 수립하여 신규 물동량 유치로 성장 동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새만금신항 원포트 무역항 지정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로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무역항 지정 결과를 항만기본계획에 고시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산북천 유역 개선복구공사 본격 추진

약 334억 투입 26년 준공

익산시가 산북천 유역의 반복적인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항구적인 개선에 나선다.

익산시는 총사업비 334억 9,000만 원(국비 321억 7,000만 원, 도비 6억 6,000만 원, 시비 6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산북천 유역 개선복구 공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산북천 유역 침수방지 종합계획'의 핵심 사업이다. 시는 2023년(하류부)과 지난해(상류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북천 일대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 구간은 낭산면 구평리 1760번지에서 삼담리 죽청천 합류점까지 총 2.5km로 △제방 보강(5,796m) △교량 재가설(4개소) △기존 교량 철거(1개소) 등 구조적인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토지보상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계획 인가 이전부터 조기 협의 매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주 및 이해관계자들과 원활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북천 유역의 침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불편 해소를 위해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료 인상

봉안·자연장지 단계적 제한

운영비 증가와 장사문화 변화에 따라 정읍 서남권 추모공원의 운영 방식이 변경된다.

지난 2일부터 화장료가 인상됐으며, 조기 만장이 예상되는 자연장지와 봉안시설은 각각 올해 5월 2일, 2026년 1월 1일부터 정읍시민 외 사용이 제한된다.

정읍, 김제, 고창, 부안 등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남권 추모공원은 지난 4월 정읍시의회에서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새로운 화장시설 사용료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번 인상으로 만 15세 이상 관내 주민(4개 시군)의 화장료는 기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

그 외 전북특별자치도 내 타 시군 주민(도내)은 50만원, 다른 시도 주민(관외)은 8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시는 추모공원 운영비와 화장 처리 비용 증가로 인해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정읍 서남원 추모공원 전경 <사진=정읍시>

사용료 인상과 더불어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대한 타 지역 주민 이용 제한 조치도 시행되거나 예정됐다. 급격한 장사문화 변화와 2단계 시설 완공에도 불구하고 조기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자연장지는 지난 2일부터 정읍시민 외 타 지역 주민의 사용이 제한됐다. 봉안시설 역시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정읍시민 외에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화장장 사용료 현실화와 함께, 자연장지 등의 조기 만장에 대비해 부득이하게 타 지자체 주민의 사용 제한을 추진하게 됐다"며 "서남권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공모 선정

국비 12억 확보 스마트 인프라 구축

군산시는 국토교통부의 '2025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의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12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검증된 스마트 기술을 중소도시에 집중적으로 보급해 △도시 서비스의 질 개선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공모에는 전국 24개 도시가 신청하였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군산시가 5개 선정 지자체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군산시는 사업 선정을 통해 △스마트 횡단보도(보행자·차량 이동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시각·청각적 안내 장치를 통해 교통상황을 직관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스마트폴(S-Pole)(지능형 CCTV 기반의 안전·데이터 수집·편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IoT 통합설치 지주) △실시간 신호제어(정확한 교통량과 대기행렬을 실시간으로 측정한 뒤 방향 별 가장 적합한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할당하는 시스템) 및 신호 개방(차량 및 모바일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전방의 신호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이상 음원 장치 지능형(AI) 선별 관제(CCTV 실시간 영상정보를 지능형 S/W 기술을 활용해 관제 대상 객체의 움직임과 특정 음성이 있는 CCTV 영상만을 선별하여 관제 화면에 나타내는 시스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교통혼잡 해소, 보행자 안전 강화, 범죄예방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제58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

10~11일 정읍천변서 개막

131년 전, 동학농민군의 우렁찬 함성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진다.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정읍시 천변 어린이축구장 일원에서 열리는 제58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그 뜨거운 역사의 현장으로 시민들을 초대한다.

올해 기념제는 특히 당시 동학농민군의 모습을 재현하는 1894명의 대규모 진군행렬을 준비해 시민의 품속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다.

'동학농민혁명, 억압에서 피어난 불꽃'이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기 위한 시민 참여형 축제로 기획됐다. 백미는 단연 '1894 진군행렬'이다. 동학농민군이 정읍을 넘어 전국으로 향하던 발자취를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이 행렬에는 참가자 전원이 농민군 복장을 하고 정읍 시내를 함께 행진하며 그날의 기개를 생생하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참가자와 전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단체가 참여해 동학농민군의 정신과 가치를 공유하고 기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념제의 세계화와 전국화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또한, 독일농민전쟁 500주년을 기념하는 행렬도 함께 진행돼 뮐하우젠시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념공원에서 열리던 기념제가 올해부터 정읍시내 중심지에서 개최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의 참여와 접근성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기념제를 시민들의 생활권 속으로 끌어들여 직접 보고, 느끼는 행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반딧불이 복원으로 친환경 생태도시 도약

구룡마을 대나무숲 일대 출입 제한

익산시는 청정 자연환경을 간직한 금마면 구룡마을 대나무숲 일대를 중심으로, '반딧불이 서식처 보존 및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구룡마을 대나무숲은 환경지표종인 '운문산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돼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반딧불이의 출현은 해당 지역의 수질, 토양, 생물다양성이 건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반딧불이가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생태 환경 보전은 물론 생태교육과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딧불이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서식 생태계의 정밀 연구 및 환경 복원을 위해 구룡마을 대나무숲은 오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탐방객의 출입이 제한된다. 이번 폐쇄는 최근 대숲 내 훼손된 대나무가 늘어나고, 반딧불이의 주요 먹이인 무척추동물 서식지 검토 필요성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다.

시는 사업을 통해 구룡마을 일대가 △청정생태 복원지 △환경교육 플랫폼 △야간 생태관광 명소라는 삼박자를 갖춘 생태문화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가정의 달 맞이 군산사랑상품권 활성화

구매 한도 50만 원 유지

가정의 달을 맞아 군산시가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시는 민생경제 회복 지원 조치로 지난해 월 40만 원이던 상품권 구매 한도를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월 50만 원으로 높였다.

5월에도 시는 지역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월 50만 원의 구매 한도를 유지한다.

군산사랑상품권은 군산시 관내 1만 2천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모바일형과 카드형 상품권은 누구나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이리고등학교, 지역 교육 혁신 '맞손'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 추진

익산시와 이리고등학교가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혁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익산시는 7일 이리고등학교에서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사업 추진과 익산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교 교육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의 역량을 높여 공교육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을 통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과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익산시와 이리고는 △지역 인재 양성 △진로 탐색 및 실천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 기반 교육과정 개발 등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새만금신항 독자항 명명 지정

해수부, 무역항 부여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결정 환황해권 거점 항만 육성

해양수산부가 작년 5월 무역항 지정 절차에 착수하기에 앞서 지자체 의견조회를 시작하면서 촉발된 새만금신항의 항만법상 법적지위에 관한 논쟁이 군산항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독자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7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 2일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신항의 항만 지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의 주요 골자로는 기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새만금항 신항'과 '군산항'은 '새만금항'이라는 광역항만 아래 국가관리무역항으로써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아 '새만금항 신항'은 군산항과 별개의 계획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항만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됐다.

이날 결정으로 '새만금항 신항'은 공식적으로 국가관리무역항으로써 지위를 부여받게 돼 추가적인 국가예산 확보와 26년 하반기 개항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주목할만한 점으로는 기존 국내 14개 국가관리무역항 중 하나였던 군산항 대신 '새만금항'이 그 위치를 대신 차지하게 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항만 발전 주도권이 사실상 군산항에서 새만금항으로 이전됐으며 기존 군산항은 새롭게 탄생한 새만금항의 일부 항만으로 포함되는 모양새를 띠게 됐다.

이러한 항만 지정 방식이 나오게 된 배경은 새만금신항의 법적 지위가 향후 본격화될 신항만 관할권 분쟁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을 지원하게 될 새만금신항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해수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서,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 논의 과정은 전북자치도 해양항만산업 외연 확장과 지역의 항만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정치 논리에 휘말린 나머지 중립적이지 않은 입장을 보인 점에서 전북 발전에 퇴행적인 오점을 남긴 것이라는 평가를 했다.

해양수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항 신항'을 새만금 배후권역의 기업유치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6년 말까지 잡화부두 2선석을 차질 없이 개장함과 동시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중인 에너지, 식량 클러스터, 해양관광 등과 관련한 기능을 금년 중 고시 예정인 제3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해양수산부의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과 별개로 현재 새만금신항 방파제에 대한 매립지 자치단체 관할 결정이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계류중인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해수부 결정에 대해 "새만금신항의 독립성과 본연적 기능을 국가적으로 재확인한 결과"라면서 "새만금항이 새만금과 김제발전을 견인하고 환황해권 거점 항만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 복분자주, 1억원 규모 호주 수출 선적

시드니 현지 마트 등 계약 영국·베트남 시장 확대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관내 복분자주 제조업체인 서해안복분자주(대표 송지훈)가 호주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작업을 완료했다.

수출품목은 고창서해안복분자주의 대표 제품인 '선운'(도수 13%, 375ml)으로, 최상급 고창산 복분자를 원료로 원적외선과 바이오성분이 함유된 황토 토굴에서 정성껏 빚어낸 고급 전통주다.

'선운'은 2003년 대통령하사주, 200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만찬주, 2017년 청와대 만찬 건배주 등으로 선정되며 명성을 쌓아왔다.

이번 수출 물량은 총 8만달러(한화 약 1억원) 규모로, 시드니 지역의 현지 마트 및 외식업체를 통해 유통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수출을 계기로 서해안복준자주는 중국, 태국, 영국, 베트남 등으로도 시장을 확대하며, 고창 복분자주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의 대표 특산품 복분자주가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며 고창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며,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마실축제 폐막…관광객 19만여명 흥행

5월 가족여행 콘셉트 바탕

부안군 대표 축제인 제12회 부안마실축제가 지난 2일 개막해 5일 폐막식을 끝으로 성료된 가운데 궂은 날씨와 추위가 지속되는 기상여건 속에서도 주민과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19만여명(5일 오후 6시 기준)을 불러 모아 흥행에 대성공했다.

올해 축제는 '5월의 선물, 가족여행 부안!'이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부안의 역사와 문화, 자원, 먹거리 등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축제 공간은 이웃마실, 놀이마실, 문화마실 등 5가지 테마로 구성했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개·폐막공연 등 공연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 추첨 이벤트 등으로 개최돼 각 프로그램마다 구름 인파로 가득했다.

실제 지난 2일 열린 '개막식 및 개막공연'에는 5000여명의 관광객이 모였으며 축제 핵심 프로그램인 '최고의 마실을 찾아라'에도 5만여명이 참여해 폭우와 추운 날씨도 무색하게 했다.

또 인기 TV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유명한 최현석 셰프가 부안의 백합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는 '마실 쿠킹 라이브', 아이들이 율동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핑크퐁과 튼튼쌤의 댄스파티'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들도 6만여명의 군민과 관광객들이 찾아 북새통을 이뤘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인 축제 캐릭터 '부안몬 프렌즈' 골드바를 추첨을 통해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 프로그램인 '황금몬을 선물합니다'가 진행된 폐막식과 송가인·진성·김미주 등 인기 가수가 총출동한 폐막공연에도 6000여명이 찾아 축제 마지막의 아쉬움을 달랬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내년에도 더욱 재미있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부안마실축제를 준비하겠다"며 "따뜻한 봄꽃의 향기가 가득한 5월의 봄날에는 항상 부안마실축제를 잊지 마시고 부안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국가예산 확보 최선"

열린 공감의 날 행사서 분야별 복지 협력체계 점검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2026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7일 열린 5월 열린 공감의 날 행사에서 "5월은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 예산 편성의 핵심이 되는 시기"라며 "예산은 군정 운영의 토대이자 군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을 가속화 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서는 부처별 정책 방향과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중앙부처, 정치권, 전북특별자치도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리 전략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교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권익현 군수는 "공직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례 답습의 단순한 업무 처리자가 아닌 혁신적 사고와 변화에 대한 용기"라며 "우리의 관행이 군민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항상 돌아보며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공직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해당 부서와 읍면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 따뜻한 배려가 살아 숨 쉬는 부안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복지 협력체계를 다시 한번 꼼꼼히 점점해 달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 무장읍성 축제, 10일 개막

역사 골든벨 등 체험 운영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고창 무장읍성에서 오는 10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장읍성 축제가 열린다.

무장읍성(사적 346호)은 호남방어 요충지로 왜적 침입을 막고자 관과 민이 호국정신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돼 축조한 읍성이다. 동학동민혁명군이 무장기포지에서 포고문을 선포하고 봉기한 후 최초로 무혈입성한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

올해 축제는 무장읍성의 역사적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다양한 신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역사 골든벨 △함께 그리는 무장읍성 그림대회 △무료 체험 프로그램 △성 밟기 체험 등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축제 사전접수 후 현장을 방문하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방문 이벤트, 축제 종료 후 꽃화분 증정 이벤트, 무장읍성을 한 바퀴 돌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성 밟기 이벤트 등 풍성한 부대 행사도 마련돼 있다.

최순필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무장읍성축제는 역사와 문화를 잇는 교육적이고도 재미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함께 즐기며 살아 숨쉬는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청렴실천서약·결의대회 마련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7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청렴 실천 서약 및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행정과 갑질없는 투명한 공직문화 실현을 위한 청렴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청렴 실천 서약식은 △신규 공직자 대표의 청렴 실천 서약서 낭독 △전 직원 서약서 서명 △참여형 이벤트 "추억의 뽑기! 청렴 김제를 찾아라!" 등으로 구성돼, 참여와 공감을 중심으로 한 실천형 청렴 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청렴 서약서 낭독은 2024년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인 교통행정과 함해웅 주무관과 농업정책과 박한울 주무관이 대표로 맡아 의미를 더했으며 이후 참석자 전원이 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한 김제를 위한 의지를 함께 다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올해도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청렴을 실천해, '청정도시 김제'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5월 이달의 새 '붉은어깨도요' 선정

고창군이 5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로 멸종위기 철새인 '붉은어깨도요'를 선정하고, 철새 보호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붉은어깨도요는 대표적인 이동성 조류로, 러시아에서 호주까지 이동하며 봄과 가을 고창갯벌에 들러 휴식과 먹이활동을 한다.

붉은어깨도요는 갯벌에서 조개류를 주로 섭식하는 상위 포식자로, 개체수 변화가 갯벌 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간척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급감함에 따라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지정 국제적 멸종위기종(EN)으로 분류됐으며, 국내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및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고창갯벌에서는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람사르고창갯벌센터 인근 복원지 및 쉐니어 모래언덕에서 붉은어깨도요를 관찰할 수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참풍부안' 마실축제서 인기

부안군은 최근 개최된 제12회 마실축제에서 부안군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 기간 동안 부안군은 '참풍부안' 브랜드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우·오리 무료 시식회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고급 한우의 풍미와 신선한 오리고기의 담백한 맛은 축제장을 찾은 많은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참풍부안'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한층 높였다.

특히 무료 시식회는 참풍부안 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가족 단위 관람객과 축제 참가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권오범 축산과장은 "이번 마실축제를 통해 참풍부안 브랜드의 우수성을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부안군 축산물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보건소, 세계 금연의 날 흡연 폐해 인식 개선 캠페인

김제시(시장 정성주)보건소는 오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세계 금연의 날 집중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 참여형 건강 실천 프로그램으로, 일상 속 걷기 실천과 흡연 폐해 인식 개선을 함께 도모한다. 특히 모바일 건강관리 앱 '워크온(Walk-On)'을 활용한 '같이걷깅 꽁초줍깅 플로깅 챌린지'를 통해, 25일간 15만보 걷기 및 담배꽁초 줍기 인증사진 등록을 유도해 흡연 예방 및 환경보호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금연 취약 지역으로 분석된 금산면·죽산면 지역에서는 보건지소 걷기 동아리와 연계해 금연 독려 가두행진과 흡연 및 치매 예방 교육이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 이동건강체험관과 찾아가는 건강캠프를 연계한 홍보 및 세계 금연의 날 퀴즈 이벤트를 실시하며 전통시장 5일장 가두 캠페인,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 등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의 해로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강 캠페인을 통해 금연 실천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28일까지 일제 단속

고창군이 '고창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8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고창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고창사랑상품권의 부정 사용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고창사랑상품권 결제 거부하는 사례 등이다.

고창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상품권 관리시스템 이상거래 탐지기능을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사전에 추출해 집중 점검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민안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고창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수단인 만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창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문화원, 예비 예술 인재 육성 동백연 청소년문화예술경연 성료

김제시가족센터(센터장 장덕상)는 지난 5일 무주군에 위치한 태권도원 일대에서 꿈디자이너 '비전원정대' 어드벤처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비전원정대는 월드비전의 꿈지원사업인'꿈꾸는 아이들 꿈디자이너'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에게 관심 분야의 진로 탐색, 다양한 직업인과의 만남, 문화 체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꿈디자이너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 9명은 태권도원을 방문해 숲속에서 펼쳐지는 어드벤처 활동을 즐겼다. 해당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학업으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래 간 긍정적인 유대감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그동안 쌓였던 학업 스트레스를 잊고 즐거웠다","어드벤처 활동 초반에 겁이 나 중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컸으나 용기를 내어 도전해 체험을 완수하니 자신감과 성취감이 생겨 뿌듯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제시가족센터는 향후 비전원정대를 아동의 직업 성격유형 파악하는 시간과 개별 아동들이 희망하는 직업군의 직업인을 만나 인터뷰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공감뉴스 | 전북을 세계로
2025년 5월 8일 목요일

완주 문화산단, 랜드마크 추가 선정

문화선도산단 선정 이어 322억 규모 랜드마크 조성 문화·교육·산업 융합 구축

완주군이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 선정에 이어 322억 원 규모의 '랜드마크 조성 사업'에 추가 선정됐다.

이에 완주군은 기존 471억 원 상당에 이어 랜드마크까지 총 885억 원의 사업비(부지매입비 포함)를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전국에서 단 3곳만 선정된 문화선도산단 사업은 완주군만이 유일하게 군 단위로 정책 기획과 준비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군의 문화선도형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군은 2028년까지 총 9개 사업에 777억 원(국비 450억 원, 도비 60억 원, 군비 26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여기에 토지매입비 108억 원을 포함해 총 88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산업단지에 투입한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완주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문화·교육·산업이 융합된 복합문화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산단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정주 환경 개선, 기업 간 교류 생태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은 △국제 포럼과 기업 협업을 위한 컨벤션홀 △자동차 산업과 산단의 역사 전시를 위한 산업전시관 △수소과학 및 미래자동차 체험이 가능한 첨단산업체험관 △지식 공유와 문화연계를 위한 비즈니스 공간 △근로자 및 방문객을 위한 캡슐호텔을 구축한다.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완주군과 완주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해 다양한 민·관·산 주체들이 참여하는 문화융합 협의체를 중심으로 실행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문화융합협의체는 △입주기업 수요 발굴 △청년문화 기반조성 △예술인 활동기반 마련 △지역 콘텐츠산업과의 연계 발굴 등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실무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문화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

특히 완주군과 완주문화재단은 향후 △랜드마크 세부 설계 및 착공 △기업 맞춤형 콘텐츠 운영 △지역 청년 참여 연계사업 등을 중심으로 연차별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간다.

공모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산업·문화·정주 환경이 융합된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 고도화 및 정책 연계 전략 수립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피오리움, 개관과 동시에 인기몰이

'남원다운' 미디어아트 지역 새 랜드마크 부상

지난달 30일 남원시 미디어아트 전시관 '피오리움(Fiorium)'이 제95회 춘향제와 함께 문을 열었다. <사진=남원시>

지난달 30일 제95회 춘향제와 함께 문을 연 남원시 미디어아트 전시관 '피오리움(Fiorium)'이 특별한 문화 경험을 선사하며, 방문객들에게 강한 첫 인상을 남기고 있다.

전통의 정취가 거리 곳곳을 채운 도시의 시·공간 위에 피오리움은 빛과 예술, 감정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관람객의 발걸음을 빠르게 사로잡으며, 짧은 시간 안에 확실한 존재감과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콘도건축이 중단돼 오랜 기간 방치됐던 폐산업시설을 리뉴얼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남원 '달빛정원'에 위치한 피오리움은 '새롭게 피어나는 남원의 빛'을 주제로 한 미디어 전시와 참여형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문화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본 미디어아트 전시는 '남원다운' 컨텐츠를 통해 '남원에서 꼭 들러야 할 장소'로 빠르게 입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피오리움은 남원의 문화 경험을 한층 더 확장시키는 공간으로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 어울림센터, 잇단 벤치마킹 '주목'

도시재생사업 우수사례 장수·완주 등 관계자 견학

순창군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 거점시설인 '순창 어울림센터'가 도시재생 우수 운영 사례로 주목받으며 도내 시·군 관계자들의 견학지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3월 완공된 어울림센터는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지역 커뮤니티 거점 시설로, 도시재생의 비전인 주민 중심의 일상 속 변화를 실현하는 대표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센터는 주민 이용 중심의 공간 구성과 더불어, 행정 직영 기반의 주민 참여형 운영 모델을 채택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시설 제공을 넘어, 주민이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어울림센터 2층에 마련된 커뮤니티 회의실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순창읍 일대의 주민협의체, 지역 단체, 소모임, 워크숍, 교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3층 '책쉼터'는 독서와 휴식을 위한 개방형 공간으로, 앞으로 더욱 많은 주민들의 일상 속 쉼터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처럼 주민 친화적이고 실용적인 공간 구성을 기반으로 어울림센터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도시재생 실천의 장으로 기능하며, 타지역 도시재생 모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도시재생 관련 관계자들의 견학이 이어졌다. 장수군은 오는 6월 개관 예정인 '어울림센터' 운영을 앞두고 순창의 운영 방식과 주민 연계 방식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완주군 역시 도시재생 자치 공간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사례를 공유받는 등 순창형 도시재생 모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 농특산품 축제, 춘향제와 '흥행 대박'

지역 농특산물·가공품 인기

2025 제2회 남원시 농특산품 축제가 제95회 춘향제 기간에 열렸다. <사진=남원시>

2025 제2회 남원시 농특산품 축제가 올해 가장 큰 인기를 끌며 지역 경제와 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렸다.

제95회 춘향제가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5월 6일까지 남원시 요천변 둔치에서 열린 이번 농특산품 축제는 관내 41개 업체와 함께 남원의 대표적인 농특산품(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복숭아, 부각 등)과 원푸드 가공품을 대대적으로 알렸으며 참여 체험프로그램까지 결합해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히 남원 원푸드 홍보를 위해 마련된 ONE the Namwon Festival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백향과 가공상품을 선보였으며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함께 진행한 백향과 쿠킹체험 프로그램, 백향go 게임부스, 남원 원푸드 전시부스와 백향과 시제품 시식행사를 통해 남원 농특산물을 알리고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매출증대에 일조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춘향제에서 배출한 'K-문화자산' 역대 춘향 15명이 이번 '제95회 춘향제'에서 춘향 앰버서더로서 남원을 알렸다. <사진=남원시>

남원 '춘향 앰버서더' 본격 활동 돌입

역대 춘향 공식 앰버서더화 춘향제 기간 다채로운 활동

춘향제에서 배출한 K-문화자산인 역대 춘향 15명이 이번 '제95회 춘향제'에서 춘향 앰버서더로서 남원을 알리는 데 일조했다.

남원시는 100년을 나아가는 춘향제의 모멘텀으로서 '춘향'의 가치를 정립, 자산화하기 위해 지난달 '춘향 앰버서더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하고, 춘향제에서 배출된 춘향들을 공식적으로 남원시 앰버서더화해왔다.

이에 시는 그 후속으로 이번 춘향제에서는 △무대 위의 춘향 △'춘향 앰버서더 in 남원'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 역대 춘향들이 춘향 앰버서더화로써 활동할 프로그램 등을 다채롭게 진행했다.

지난 3일 남원 예촌 사랑마루에서 진행된 '춘향 앰버서더 in 남원' 행사에서는 춘향 14명과 올해 선발된 2025 당대 춘향 9명까지 참여, 김정미 퍼실리데이터, 함한희(사)무형문화연구원장의 강의를 통해 남원자산에 대해 알아보고 춘향 앰버서더로서의 역할 등을 재정립하는 등 역대 춘향들의 진정성 있는 홍보활동 방향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원푸드존 농특산품' 행사 지원'에도 참가했으며, 같은 날 오후에는 최근 개관한 달빛정원 내 '피오리움'도 방문, 남원 명소를 알리는 활동도 펼쳤다.

이밖에도 5일까지는 춘향퍼레이드, 한복패션쇼, 춘향 그네뛰기 대회, 춘향무도회 등에 참석해 남원을 알리고 방문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기도 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가정의 달 다양한 문화축제 '호응'

누에·예술촌서 어린이날행사 오감 체험·공연 온 가족 즐겨

완주군이 가정의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해 군민과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특별한 이틀을 보냈다.

지난 3일에는 어린이날 대축제 연계 특별행사인 '누에야 놀자 in 복합문화지구 누에'를 열어 다양한 가족참여형 체험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았다.

행사장에서는 △손수건염색 △재봉틀체험 △도예체험 △목공체험 등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창의체험이 다채롭게 진행됐고, 부모님도 함께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창작인형극 〈누에는 깨금발〉도 큰 인기를 끌었다. 같은 날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전래동화인 '콩쥐팥쥐'를 재해석한 오페라 〈신콩쥐〉가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진 6일,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진행된 '어린이잔치' 역시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발길로 북적였다. 현장에서는 비보잉, 비트박스, 풍선아트, 버블마술쇼 등 짜임새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며, 아이들을 위한 먹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서울 강서구와 우호교류 협약

문화예술·경제 협력 강화 양 도시 상생 발판 마련

지난 3일 전북자치도 남원시와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화인당에서 공동 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양 도시는 협약서에 경제, 문화예술, 관광, 체육,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각 지역 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해 주민의 이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아 미래 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16일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

보건정책 개선에 활용

순창군은 질병관리청과 함께 이달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순창군 특성에 맞는 보건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19세 이상 성인 약 9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전문 조사원이 직접 가정을 찾아가 태블릿PC를 활용한 1:1 면접 방식으로 건강행태, 만성질환 유병률, 의료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가 승인 통계조사로,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조사로 평가받고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지역 보건사업의 기획과 성과 평가,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등 폭넓게 활용되며, 응답자의 개인정보와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아울러, 해당 정보는 오직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목적에만 사용된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 삼례시장, 어버이날 '전통시장 와글와글 가요제'

전통시장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무대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행사가 8일 오후 2시 완주군 삼례시장에서 열린다.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가요제는 코미디언 황기순의 사회로 기념식과 군민 노래자랑, 축하공연, 행운권 추첨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초대가수 문연주, 배아현, 이대원, 고은빛 등의 흥겨운 무대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삼례시장은 다양한 맛집과 개성 있는 점포들로 입소문이 난 곳으로, 어버이날 가족과 함께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요제 예선은 행사 당일 오전 11시에 진행하며, 참가 신청 및 문의사항은 삼례시장상인회(063-291-8899)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대파 생분해비닐 활용 재배 비용 낮추고 생산성 높인다

완주군이 대파 생분해비닐피복 생력재배 현장 평가회를 열고, 대파 농업기술 향상은 물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7일 완주군은 최근 봉동읍 고천리 일대에서 대파 농업인과 관련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평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생분해비닐피복을 활용한 대파 생력재배 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대파연구회를 대상으로 재배 노동력 절감과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진행됐다.

평가회를 통해 생분해비닐 사용을 통해 잡초 제거 시 노동력 절감과 생산량 증대가 확인됐다.

잡초 제거 시간은 기존 21시간에서 3시간으로 대폭 단축됐으며, 이에 따라 경영비는 10a당 약 60만 원이 절감됐다.

또한, 생산량은 기존 방식보다 30% 이상 증가하고, 상품성 있는 대파 비율도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생육기간 단축 효과를 통해 후속작 준비가 더욱 수월해졌으며, 비닐은 자연적으로 분해돼 폐비닐 처리 부담을 줄였다.

유평기 기술보급과장은 "생분해비닐 자재의 효과를 현장에서 실증하며 폐비닐 저감과 환경 보호에 큰 의미를 더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자재 사용 확대는 물론, 대파 공선회와의 협업 등을 통해 생산부터 출하까지 연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 지적재조사 미청구 조정금 수령 안내 홍보 강화

순창군이 군민의 권익 보호와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5월 완료한 운남·용산·금월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과 관련해 아직 청구되지 않은 조정금에 대해 군민들이 손쉽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적 재조사 미청구 조정금 찾아주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 중인 국책사업으로 실제 토지 이용 현황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아날로그 방식의 종이 지적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정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며, 지적 재조사 결과 면적이 증가했을때 소유자가 조정금을 납부하고 면적이 감소하면 소유자가 조정금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 순창군에 따르면 아직 청구되지 않은 조정금은 총 55건, 약 3억 6,200만원에 달한다. 미청구 사유로는 관외 거주, 우편물 미수령, 소유주 사망 후 상속 관련 서류 미비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군은 공문 발송, 전화 안내, 문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조정금 수령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군민의 정당한 권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무주군, 초·중학생 120명 원어민 1:1 영어 화상 학습 지원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이하 재단)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내 초·중학생들의 '원어민 영어 화상 학습'을 지원한다.

4개월간의 수강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단에서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기초생활수급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등 우선 지원 대상자 20명과 일반 지원 대상자 1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은 무주군 화상영어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수업은 오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학생들은 자신의 시간과 여건을 고려해 주 3회 20분 또는 주 2회 30분 중 선택 할 수 있다. 다만, 월 출석률이 70% 미만인 경우 수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 후 레벨테스트를 거쳐 개인별 맞춤형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영어 자신감 향상, 학습 격차 해소, 글로벌 마인드 함양 등의 교육적 효과가 클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큰 만큼, 모두가 만족하는 원어민 영어 화상 학습이 되도록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 한마음 독후감 공모전 인문 감수성 향상 도모

진안군 작은도서관 운영협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 확산과 인문 감수성 향상을 위해 '2025 진안군 한마음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7일부터 8월 29일까지 진행되며, 8세 이상 진안군민 또는 작은도서관 이용가입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방식은 진안군 관내 8개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추천한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작성해 제출하는 형태다. 추천 도서는 △푸른꿈 △마이 △세모네모 △동향 △숲속 △부귀 △흰구름 △주천행복나눔 작은도서관에 비치돼 있다. 접수는 작은도서관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며, 마감은 8월 29일 오후 6시까지다. 공모 부문은 △아동부 △청소년부 △일반부로 나뉘며,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5명 등 총 21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 결과는 9월 22일 발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지역 독서문화가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분야별 전문가 구성 학생 280여명 직업체험 호응

제10회 무주군 찾아가는 직업상담 및 직업 체험행사가 7일 무주고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됐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무주지구협의회(회장 최민휴)가 주최하고,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무주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서정분)가 주관하며 무주군(군수 황인홍)과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영진),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회장 김홍식),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단장 조덕현)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무주고등학교 학생 280여 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학생들이 꿈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검사, 검찰수사관, △경찰관,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와 △치위생사, △반려견 훈련사 등 해당 분야 종사자, 전공 교수와 학생들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정형화된 직업 체험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관심을 가지는 분야나 직종에 대한 실무 경험과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N펫스타, 8만2천여명 방문

반려동물 문화축제 역대 최대 인파 펫 용품 26건 계약 성사

임실군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오수 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임실N펫스타에 역대 가장 많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찾아 큰 성공을 거뒀다. <사진=임실군>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성지인 임실군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오수 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임실N펫스타에 역대 가장 많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찾아 큰 성공을 거뒀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반려동물 문화축제인 '제40회 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2025 임실N펫스타'에 8만2천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둘째 날을 제외한 첫째 날과 셋째 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수많은 반려인과 반려동물들의 방문으로, 축제장은 그야말로 '개반 사람반'을 방불케 할 정도로 북적였다.

올해 축제는 반려견 중심의 신박하면서도 참신한 프로그램과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운동회 등 어질리티, 반려동물 쇼, 산책길 운영, 다양한 펫용품을 볼 수 있는 박람회, 알찬 토크쇼와 재미진 반려동물 패션쇼에 전국 12개 대학 반려동물학과 학생 등이 참여하는 등 국내 정상급 펫축제다운 면모를 과시했다는 평가다.

특히 펫용품 박람회에서는 축제 기간 26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특히, 전국 12개 대학의 반려동물학과 교수와 학생들의 참여와 전북대 수의학과 학생들의 건강검진 등은 축제 성공을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둘째 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4회째 치러지는 전국 반려동물 패션쇼에서는 더욱 참신해진 패션 기획과 잘 짜여진 스토리로 반려동물과 반려가족이 조화를 이뤄 개성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마지막 날 5일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명랑운동회와 멍냥상담소, 임실군 청소년들로 구성된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임실N펫스타 축제에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오수 의견의 설화를 담은 임실군 오수를 반려동물 문화의 중심지,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성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 운문산 반딧불이 신비탐사 체험 하세요"

6월 6~8일 개최 선착순 1천2백명 모집

무주군이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 기간(2025년 6월 6~8일)동안 '운문산반딧불이 신비탐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7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3일간 총 1,200명으로 무주반딧불축제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마감할 계획이다. 참가비는 1인당 2만원, 36개월 미만 유아는 무료이며 참가자에게는 무주사랑상품권이 제공된다.

이종철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장은 "올해는 산골영화제와 반딧불축제 기간을 포함해 총 12회에 걸쳐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는 탐사객 증가와 기후 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탐사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안전과 만족도를 높이는 기회도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신비탐사의 원활한 진행과 탐사지 확정을 위해 운문산반딧불이, 늦반딧불이 출현 시기에 맞춰 서식지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무주군은 탐사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장기적인 서식지 보호를 위해 노력 중으로, 행정에서는 반딧불이를 보호하고 연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며 반딧불이 연구와 인공 사육을 통해 반딧불이 생태계 복원에 주력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곳, 다발생지역 5곳을 비롯해 150여 곳의 반딧불이 서식지를 관리하고 있다.

민간 단체와 주민들도 서식지 주변 가로등 소등과 친환경 농업 실천, 그리고 지속적인 환경정화와 보호 감시 활동 등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트레일레이스 시즌투어 I STAGE 100K' 성료

장수군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장수 와룡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열린 '장수트레일레이스 시즌투어 I STAGE 100K'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즌투어는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제6회 장수트레일레이스' 100마일 코스 일부를 돌아볼 수 있는 트레일 여행 투어로, 국내 팀 스카르파 선수와 해외 태국 아디다스 선수, 동호인들을 포함해 약 3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 2일에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트레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트레일투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본격적으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실제 레이스 코스를 나누어 트레일 투어를 진행했다.

첫째날은 무룡고개~육십령~서봉~토옥동계곡구간, 둘째날은 토옥동계곡~침령산성~싸리재, 마지막 날은 신전·장안임도~장안산~활공장~장수종합경기장을 끝으로 트레일 투어가 마무리됐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트레일레이스에 관심 가져주시는 많은 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시즌투어를 계기로 오는 9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은 오는 8월 '제2회 장수쿨밸리 트레일레이스', 9월에는 '제6회 장수트레일레이스'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트레일 러닝의 명소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스마트팜 기반 미래농업 육성

진안군이 스마트팜 기반 조성을 통해 청년농업인이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진안읍 물곡로에 조성된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류슬기 대표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군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미래농업 기반 확립이라는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해당 농장은 약 100㎡ 규모의 재배동에서 첨단 수경재배 기술을 활용해 유럽식 상추 '프릴아이스'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과 도시락 업체, 관외 유통망 등 다채로운 판로를 확보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진안군은 이 밖에도 올해 관내 40여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재 설비 등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년 늘어나는 스마트팜 농가들의 요구에 맞춰 내년도 추가예산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군은 이를 통해 농업 생산량 증대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이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청년농업인이 기술과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스마트농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반 조성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유입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흙 속에서 찾은 장수 역사' 사진전

8월 31일까지 유물 사진 전시 장수역사전시관서 무료관람

장수군은 장수역사전시관에서 '흙 속에서 찾은 장수 역사' 사진전이 개최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장수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발굴 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고대 유적지와 출토 유물을 사진으로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다. 특히 '대적골제철유적지'에서 출토된 소형 범종을 비롯해 각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20여 점의 진품도 함께 전시돼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예정이다.

전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장수역사전시관 기획전시실 1층에서 진행되며,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현장 해설도 제공된다.

장수군은 끊임없는 연구와 조사를 통해 마한, 가야, 백제 등 고대사의 핵심을 이루는 5개 국가의 역사 흔적을 확인해 왔다. 그 결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9개 역사문화권 중 무려 5개에 해당하는 '역사문화권 5관왕'에 이름을 올렸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전시는 장수군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적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방문객 모두가 장수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을 함께 공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정일윤 임실군의원 "폐농약 수거·처리 시스템 마련을"

임실군의회 정일윤 의원이 지난 2일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이 함께하는 체계적인 폐농약 수거·처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일윤 의원은 "농약 폐기 방법에 무감각한 사용자들로 인해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되거나 장기간 보관·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현재 임실군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관촌매립장에 임시 보관한 후 전문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농가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소량의 폐농약을 직접 운반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자가 보관 또는 무단 폐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단일 임시보관소 운영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참여 자체가 제한되고 있으며 홍보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일윤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을 단위의 폐농약 발생량 사전 조사, 소규모 임시 보관소 설치, 읍·면별 수거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수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폐농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수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폐농약 문제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우리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임실군이 이 분야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 행정이 주민과 함께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총력 대응

진안군이 봄철을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도내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군은 5월부터 지역주민 대상 진드기 기피제 배부와 함께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주로 봄철 참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SFTS와 가을철 털진드기로 인한 쯔쯔가무시증이 대표적이다. SFTS는 6~1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고열,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쯔쯔가무시증은 유사한 증상과 함께 진드기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 생기는 특징이 있다.

진안군은 매년 20명 내외의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70대 이상 농업인에게서 텃밭 작업이나 영농활동 중 감염 사례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등산로와 파크골프장 등 주요 진드기 노출 지역에 설치된 자동 기피제 분사기 11대와 기피제 보관함 116대를 정비하고, 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군 보건소는 주민들에게 △풀밭에 눕거나 앉지 않기 △피부 노출 최소화 등을 당부하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도시재생 집수리 총34가구 지원

임실군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구역 내 집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집수리 지원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성가지구 15가구, 오수지구 16가구 등 총 31가구의 노후 주택 보수를 완료했다.

올해는 성가지구 14가구와 오수지구 2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지붕 방수·단열·마감 공사, 외벽 도장·창호 교체, 옥외공간(마당·대문) 정비 등 주민 생활공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은 지난달 22일과 23일 이틀간 시공업체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추진 절차 및 불법 건축물 공사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심 민 군수는 "올해 지원 대상 주택에 대해 보수를 철저히 시행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5월 8일 목요일

군산시립도서관, 조병영 교수 초청 특별 강연

가짜 뉴스, 조작된 정보, 자극적인 콘텐츠가 범람하는 디지털 시대.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본기, '문해력'이 필요한 시기다.

이에 발맞추어 군산시립도서관은 오는 20일 오후 7시 조병영 교수를 모시고, <디지털 시대, 가짜에 속지 않는 문해력>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시립도서관 누리집 및 전화로 선착순 접수가 가능하다.

/군산=지송길 기자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임실사랑상품권 전달

임실군이 어버이날을 맞아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 143세대에 효도 물품(임실사랑상품권)을 오는 9일까지 전달한다.

노부모 1인을 모시는 가정에는 효도 물품으로 임실사랑상품권 20만원을, 2인을 모시는 가정에는 30만원을 지원한다.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사업은 매년 5월에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임실=한병열 기자

고창군 흥덕면 체육회, 흥덕초 배구부에 190만 원 후원

고창군 흥덕면 체육회(회장 조대석)가 주관으로 김용태 씨를 비롯한 16명의 후원자들이 흥덕 초등학교 배구부에 19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역 내 청소년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흥덕 초등학교 배구부는 이를 통해 훈련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흥덕초 배구부는 2025년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한다.

/고창=백종규 기자

전북농협, 양삼만·전호영 과장 가정의달 모범직원 표창

숨은 일꾼 지역사회 활성화

임실군지부 전호형

지리산농협 양삼만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7일 가정의 달 기념 모범직원 수상식에서 임실군지부 전호형 과장과 지리산농협 양삼만 과장이 이름을 올렸다.

가정의 달 모범직원 상은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농·축협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바람직한 일·가정 양립 실천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전북 2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10명이 선정됐으며 시상은 중앙본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전호형 과장은 자녀 3명과 함께 건강이 악화되어 수술을 받은 장인·장모를 오랜 기간 성실하게 간호했다.

그는 7개 시·군지부를 오가며 재직하며 궂은일에도 솔선수범하는 숨은 일꾼으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삼만 과장은 4자녀와 어린 조카 2명을 양육하며, 홀로 계시는 장모님의 옆집으로 이사를 감행해 통원진료를 동행하고 있다.

또 배우자와 함께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선정됐다.

이정환 본부장은 "수상자에게 축하와 감사 드린다"며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전북농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익산산림조합, 녹색정원도시 조성 성금 3,000만 원 기탁

푸른 익산 만들기 동참

익산시는 '익산산림조합'이 녹색정원도시 조성에 동참하고자 성금 3,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 기탁된 후,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나무 심기에 활용될 예정이다.

익산산림조합은 2021년부터 불우이웃 돕기, 나눔곳간 기부, 코로나19·수해복구 지원 등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수성 조합장은 "녹색정원도시 익산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자 성금 지원을 결정했다"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의 푸른익산가꾸기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밝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녹색정원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녹색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나무 심기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제12회 부안마실축제, 장학금 기부 이어져

부안군은 지난 2일 k컨벤션웨딩홀에서 진행된 제12회 부안마실축제 환영리셉션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근농인재육성장학금 기부 행렬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날 환영리셉션에서는 ㈜엠에스오팜(대표 오명석)과 중앙농업협동조합(조합장 신정식)은 각각 500만원을 기부했다.

㈜엠에스오팜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의약품 유통기업으로 영업사원에서 출발해 CEO까지 오른 부안 출신의 입지전적인 인물 오명석씨가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회사이다. 지역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2019년부터 기탁한 장학금이 어느덧 3,100만원에 이르렀다.

부안중앙농협(조합장 신정식)도 이날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2017년도 200만원 장학금 기부에 이어 올해에도 부안군 학생들을 위해 500만원의 장학금을 선뜻 기부했다. 부안중앙농협은 부안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힘쓰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대한한돈협회 정읍시지부, 장학금 500만 원 기탁

(사)대한한돈협회 정읍시지부(지부장 안용화)가 지난 2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재)정읍시민장학재단에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안용화 지부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매진하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70여 명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힘을 합쳐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약 7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대한한돈협회 정읍시지부는 지역 인재 육성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왔다.

지난해 1000만원 기탁을 포함해 2016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해 왔으며, 이번 기탁으로 누적 금액은 총 2100만원에 달한다.

/정읍=김정인 기자

남원 손경미 꽃집 탄생화 대표 어버이날 맞이 카네이션 선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남원시 수지면에 따뜻한 감동이 전해지고 있다.

도통동 소재 꽃집 '탄생화'를 운영 중인 손경미 대표가 어버이날을 앞두고 수지면에 카네이션과 간식세트를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이번 선물은 카네이션 꽃바구니 139개와 떡 8되, 음료수 4박스로 구성됐으며, 수지면의 독거노인 139세대에 전달됐다. 특히 긴 연휴를 홀로 지내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전달되어 더욱 의미 있는 나눔이 됐다.

/남원=정하복 기자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대학RCY 어린이날 행사 체험 부스 운영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지난 5일 대학RCY(청소년적십자) 회원들이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열린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는 대학RCY 회원 20여 명이 '걱정인형 만들기'와 '이니셜 팔찌 만들기' 체험 부스를 직접 운영하며 어린이들에게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영태 기자

정읍시 태인면 새마을부녀회, 독거노인 대상 '효도관광' 실시

태인새마을부녀회(회장 김영희)가 마련한 '사랑의 효도관광'에 참여한 독거노인 40여 명은 오랜만의 나들이에 설렘과 즐거움을 만끽하며 따뜻한 하루를 보냈다.

이번 효도관광은 전라남도 순천시 일대로 향하는 일정으로, 순천만국가정원과 낙안읍성 등 자연과 역사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관광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가한 어르신들은 봄기운 가득한 풍경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모처럼 환한 웃음을 터뜨렸다.

/정읍=김정인 기자

〈一事一言〉

"국민이 주인입니다"

김관춘
논설위원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유신정권 시절 인혁당 사건 이후 사법부에 최악의 재판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이재명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주권 찬탈' 의지가 없었다면 원심 무죄 사건을 단 열흘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지는 않았을 터다. 이 사건이 상고된 시점부터 열흘간에 걸쳐 진행된 절차에서 윤석열 내란세력의 재판개입 음모가 강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절차가, 그런 판결이 가능했겠는가. 대한민국의 최대 관심사인 대통령 선거를 판사 몇몇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만들었으니 이는 분명 '조희대가 감행한 사법쿠데타'다. 다행히 국민 여론을 의식한 서울고법이 어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뒤인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런 대법원의 만행을 비판한 청주지법 송경근 판사의 지적은 여전히 뼈를 때린다. 그의 글을 요약, 발췌해 올린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한다." 등의 국민적 비판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고, 오이 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말라.", "결론과 절차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법관생활 30여년 동안 참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워낙 자질이 부족한 저로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며 살지 못했지만, 대법원에 계신 '저스티스'들께서는 적어도 저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믿고 그 판결을 존중하였습니다. 6만 쪽이 넘는다는 방대한 기록을 이례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불과 2일 만에 정리하여 대법원으로 송부하고, 피고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인 4. 22. 소부 배당 후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 이틀 후인 4. 24일 2차 합의기일을 갖은 후 1주일 후인 5. 1.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더군요.

1, 2심이 정반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사안을 말입니다. 게다가 보도되는 판결이유를 살펴보니 사실관계 확정이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라 사건기록도 열심히 보아야 했을 사건이더군요. 1, 2심의 결론이 다르고 그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닌지요. 하기야 6만 쪽 정도는 한 나절이면 통독하여 즉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피고인의 마음 속 구석구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심법까지, 그야말로 신통방통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훌륭한 분들만 모이셨을 것이니...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우둔한 제 기준에만 맞춘 기우인가 봅니다.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심리할 때부터 저는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까"라고 의아해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심대법관이 불과 몇 개월 전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판결이 무죄 선고의 법리적 근거로 삼은 판결이 바로 위 판결이며, 파기환송 하더라도 절차와 시간상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이므로, 상고기각을 하려나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경우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날개 달아준 후 덕 보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게 될 것이고, 설령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주어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게 됨으로써,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재판권은 공부 잘 하고 시험 잘 보았다고 받은 포상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준 것도, 변호사가 준 것도 아닙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잘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공부' 그것도 '법률공부' 하나 잘 해서 법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공감능력, 인문학적 소양, 공직자로서의 자세 등 법률지식 못지 않게, 아니 그 보다 더 중요한 시민적 소양은 검증된 바 없습니다. 평범한 국민들 중에는 위와 같은 능력에 있어 우리 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만 모를 뿐입니다. 국민은 그저 지배대상이, 재판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임명한 주인입니다.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판사 송경근 올림-

사 설

탄소중립 실현 선도하는 전북의 도전

전북자치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도 차세대 CCU 기술고도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전북은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연료와 소재로 활용하는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 기술을 기반으로, 수소와 결합해 고에너지밀도 고상 합성원유를 생산하는 이퓨얼(e-Fuel) 산업에 본격 뛰어들게 됐다.

이퓨얼은 물을 전기로 분해해 얻은 수소와 대기 중 또는 산업단지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합성해 만드는 차세대 친환경 연료다. 전기차 전환이 쉽지 않은 항공, 해운, 국방, 내연기관차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이 추진될 군산은 이산화탄소 포집이 용이한 산업단지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 클러스터가 인접해 있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사업 규모도 주목할 만하다. 오는 2028년 12월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국비 186억 을 포함해 총 240억이 투입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화학연구원, 경북대, 건국대, 군산대, 울산과학기술원 등 산·학·연 8개 기관이 공동 참여해 기술 실증과 상용화 연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군산은 지속가능항공유(SAF) 공급지와 친환경 선박연료 기지로 도약할 기반을 다지게 된다.

전북이 이번 사업에 최종 선정된 배경에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있었다. 2023년 11월부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군산대, 그리고 수요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사전 기획을 추진해 왔고 지방비 확보와 공모 대응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했다. 이는 전북 지역이 전략적으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하지만 이번 성과를 일회성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퓨얼 기술은 여전히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으며, 기술 고도화와 시장 개척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가격 경쟁력 확보와 대량 생산 체제 구축,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은 반드시 병행돼야 할 과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이퓨얼 기술을 넘어 관련 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생산·유통·소비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해 전북형 수소경제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통해 전북은 단순한 수소산업 거점을 넘어 대한민국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와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전북이 이퓨얼 산업을 선점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전북이 이번 기회를 잘 살려 미래를 여는 힘찬 도약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

▲오늘의 시

5월의 아침 / 나태주

가지마다 돋아난
나뭇잎을
바라보고 있으려면
눈썹이 파랗게
물들 것만 같네요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려면
금세 나의 가슴도
바다같이 호수같이
열릴 것만 같네요

돌덤불 사이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듣고 있으려면
내 마음도 병아리 떼같이
종알종알
노래할 것 같네요

봄비 맞고 새로 나온
나뭇잎을 만져보면
손끝에라도 금시
예쁜 나뭇잎이 하나
새파랗게 돋아날 것만 같네요

시인 약력 : 1945년 충남 서천 출생. 공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공주 장기초 교장을 끝으로 43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쳤다. 교사 재직 중 1971년에 서울신문 신춘문예에서 '대숲 아래서'로 등단했다. 공주시 나태주풀꽃문학관에서 문학 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풀꽃'이 있다. 한국시인협회 심의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문화재열전

남원 기지입암향약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기록유산, 문서류, 민간문서
-지정일 - 2022년 11월 18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남원시 금지면 입암리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정읍시, 위기 속에서 미래를 짓다

일자리로 삶을! 신산업으로 미래를!

정읍시가 인구감소와 지역산업 위축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전략적 기업 유치,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정읍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첨단과학산업단지 <사진=정읍시>

바이오 산업 중심

청년 취업박람회

일자리지원센터, 디지털 아카데미

일자리 창출·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총력
기업 지원·바이오산업 육성·도시재생 사업
지속가능 도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
맞춤형 지원으로 고용 안정망 구축

시는 '든든한 일자리, 맞춤형 청년 정책'을 기조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망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존 '정읍시 취업중개센터'를 '일자리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 단순 구인·구직 알선을 넘어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까지 포괄한다. 지난 3월 17일부터는 80시간 과정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등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구인난을 겪는 기업이 청년(18~39세) 또는 신중년(40~69세)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최대 1년간 월 7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신규 채용을 유도한다.

저소득층·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상생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현재 203개 분야에서 156명이 근무하며 안정적인 생활과 재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눈에 띈다.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100만원의 구직지원금을 지급하고, 미취업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복지포인트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다. 자산 형성을 위한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본인 납입금 10만 원씩 2년 적립 시 최대 500만 원 수령)과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무주택 청년 대상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이러한 단기적인 지원책과 더불어,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는 인식하에 우량 기업 유치 및 기존 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포상 등 중장기적인 방안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 기회발전특구 지정·기업 지원 강화
미래 성장 발판 마련

정읍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전략적인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25일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 및 동물의약품 분야에서 지정받은 '기회발전특구(ODZ)'를 발판 삼아 첨단산업 분야 유망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특구에는 현재 앵커 기업 1개사와 협력기업 7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이들 기업은 세제 감면과 함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최대 10% 추가 지원 등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시는 특구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가 직접 출자한 연구특구 기술사업화 펀드와 전북혁신성장 벤처펀드를 활용한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매년 100억 원 이상의 기술사업화 자금을 확보해 기업의 R&D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 지원에도 소홀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연장을 추진해 입주 기업들이 각종 지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해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밀착 지원을 제공한다.

◆ 바이오산업, 정읍의 미래를 열다
신성장 동력 육성 박차

시는 또한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축적해 온 연구개발 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 바이오 분야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을 발굴·유치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2024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3년간 총 100억원(시비 40억원 포함)을 투입하는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을 추진, 혁신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 유수 기업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 기업 유치·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총 365억원을 투입하여 바이오 관련 전·후방 기업 60실이 입주할 수 있는 '바이오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의료·제약 분야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 GMP급 실습 설비를 갖춘 180억원 규모의 '제약산업 미래인력양성센터'가 올 1월 착공해 올해 말 준공, 2026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시는 이러한 인프라 구축과 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신정동 첨단산업단지 일대를 바이오산업 메카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이 찾는 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 도시재생으로 구도심에 활력을,
주민 삶의 질 높인다

시는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거점시설들이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연지동 일원에 총 67억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메이플플랫폼'은 복합 창작·문화 공간으로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인근에는 동학농민혁명과 항일 운동을 주제로 한 '작은 역사공원'이 조성된다.

연지동 65-20번지 정읍우체국 부근에는 총 53억원을 투입해 약 100석 규모의 마을 공연장과 음악 도서관 등을 갖춘 '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 건립돼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장명동 각시다리터 일대에서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국비 45억원 포함 총 77억 원을 투입하는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이처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도시 환경 개선이라는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